



##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등 논의 -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3.19.~3.28.) 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2025~2029)」(이하,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목) 발표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
-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

-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22.6월)으로 정책대상이 '경력 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 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포럼('24.6~7월), 정책 토론회('24.12월), 관계기관 의견수렴('25.1~2월) 등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 아래 2대 목표(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를 정하고,
- 정책과제로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4차 여성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 수립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원  
▲초기 경력 형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실태조사 최초 실시
-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신규 운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여성 창업인 지원 강화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지원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 확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 기업 다양성 교육(DEI)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새일센터 역할 강화  
▲이(e)새일시스템-고용24 간 정보연계 확대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1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 사회진출 초기 청년 여성의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모듈) 개발,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설계, 취업클리닉 등/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 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신설하여 취업과 연계한다.
  - \* 대·중견기업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직무교육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15~34세 대상, 청년과 여성의 관심이 높은 산업 위주로 사업단 발굴 추진)
-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및 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IT·로봇 등)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하며,
  - \* 여성 일자리 선호도, 업무특성 등 학위별, 세대별 진출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 \*\* 대학 간, 학과 간 벽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18개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
- 올해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여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2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한다.

\* 훈련과정 80% 이상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 대상 1개월 당 10만원(총 4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 제외)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원 → ('25년) 400만원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 및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 새일센터-중장년내일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한편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새일센터 훈련생 및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운영(가족센터-새일센터 협업)

\*\* 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비율 상향(전체 대비 10%이상)

○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 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생활발명코리아·여성발명왕 엑스포(EXPO))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을 강화한다.

\* 지원대상: (기존)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 → (개선)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자

### 3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새일센터에서 생애·경력주기별(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구직유형 진단 → 경로설계 → 경력개발 등)\*를 지원한다.

\* 새일센터 전담상담사 운영('24년, 28개소 30명 → '29년, 50개소 50명)

- 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 훈련 확대,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
  -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
  - \*\* 영세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제공(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부담금의 20% 정부지원)

#### 4]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새일센터: (’24년) 80개소 → (’29년) 159개소
    - \*\*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25년, 전국 센터 24개소, 분소 22개소)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DEI)’ 확대를 추진한다.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확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 < 육아지원제도 개선 >

-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및 급여 인상
  - \* 월 상한 : 15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최대 2년 → 3년) 및 연령 상향(초등 2학년, 만8세 → 초등 6학년, 만12세)
- 근로자 육아지원제도 사용 시 사업주 지원 강화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최대 월 20만원) 적용 범위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24년 7월~) + (신규) 육아휴직 추가('25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범위 확대 및 상한 인상
    -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 (신규) 육아휴직 추가 / 월 최대 80만원 → 월 120만원('25년~)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24년, 월 10~40만원 → '25년, 월 20~60만원)

-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며,
-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공공지정 → 공공지정, 민간<sup>등록</sup>)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24년) 기준중위소득 150% → ('25년) 200%이하), 영아돌봄 수당신설(시간당 1,500원)

## 5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정례적 개발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여성인력 지역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등

-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 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 5개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 가점), 25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매년 발표

## < ’ 23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

-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성평등지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며,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소폭(0.8점) 하락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이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이 하락했다.

-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7개 영역 중 교육(95.6점)과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32.5점)과 돌봄(32.9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 교육(95.6) > 건강(94.2) > 소득(79.4) > 고용(74.4) > 양성평등의식(73.2) > 돌봄(32.9) > 의사결정(32.5)

-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여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21년 73.0→ ’22년 74.0→ ’23년 74.4)

\* 고용률 지수 : (’22) 78.0점 → (’23) 79.8점 (1.8점↑)

\*\*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 (’22) 82.8점 → (’23) 83.0점(0.2점↑)

- 소득영역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성별임금 격차가 감소했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상승했다.

\* 성별임금격차 지수 : (’22) 70.0점 → (’23) 71.0점 (1.0점↑)

\*\* 국민연금수급률 지수 : (’22) 70.0점 → (’23) 72.4점(2.4점↑)

○ 국가성평등지수 주요 하락 원인은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돌봄 영역 육아휴직사용률\*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자 감소폭이 여성 육아휴직자 감소폭 보다 더 큰 데서 기인한다.

\* 육아휴직사용률 = 남성 육아휴직자 수/여성 육아휴직자 수

-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육아휴직 혜택(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돌봄 공모전 개최 등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여 가족 내 돌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한편,
-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지원,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청년 공감·소통 기회 마련 등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2023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현황 >

등 급	지 역 (행정구역 순)
상위 지역 (74.05점~71.57점)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
중상위 지역 (70.84점~69.83점)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중하위 지역 (69.76점~69.07점)	인천, 경기, 충북, 경남
하위 지역 (68.72점~67.74점)	부산, 울산, 전남, 경북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2. 제4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3. 제3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4.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별첨】** 제4차 기본계획 요약본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철 (02-2100-6141)
		담당자	사무관	송진우 (02-2100-6142)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금순 (02-2100-6171)
		담당자	사무관	류효현 (02-2100-6178)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수림 (02-2100-6191)
		담당자	사무관	전진희 (02-2100-6219)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044-202-7473)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 1 청년 여성 활기차게



### 사회 초년생 진로 설계

-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및 취업 연계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 설계, 취업클리닉 등 지원
  -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 청년 여성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맞춤형 모듈 개발
  - 진로탐색, 직무역량 개발, 일경험 등
- 구직 청년여성의 기업 현장 체험 등 진로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청년여성 수요에 맞는 (새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청년전문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 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중견기업 인프라 활용교육 → 중소기업 취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 지역대학 RISE 센터(특화산업 전문직업교육)-새일센터(소양교육) 협업, 교육과정 설계

### 첨단 산업 인재 양성

- 팀 단위(대학(원)생+중고생) 공학연구 활동 지원 확대
  - 연구비 지원, 진로탐색 워크숍 참석기회 제공 등
- 신산업 분야 학위별·세대별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 지역 주력 신산업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 대학·학과 간 협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18개 분야
-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플랫폼 고도화로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AI 기반 일자리 추천, 역량진단 등 솔루션 제공
- 첨단산업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등 실태조사 첫 실시

## 2 중·고령 등 여성 당당하게



###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 육아기 수강생 돌봄과 직업훈련 병행 지원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예외출석인정 검토, 참여촉진수당 신설
- 새일센터-기업 연계, 맞춤형 직업 설계 및 연계기업 우선 채용
-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원 → ('25년) 400만원
- 동일업종 요건 폐지 등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중·고령층 취업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 프로그램 신설
- 노·노(老·老) 케어 돌봄 서비스 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지역중고령일자리 전문기관 연계, 시니어인턴십 등 지원
- 새일센터-평생학습관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사각지대 여성 밀착지원

-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육에서 취업연계까지 통합 지원
- 건설업 입직 희망자 발굴 및 여성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 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여성 비율 향상(전체의 10% 이상)
- 대학(원)생 육아휴학 기간 확대(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여성 창업 단계별 지원

- 창업형 새일여성인턴 운영으로 스타트업 현장 경험 제공
- 우수 특허기술과 발명품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EXPO등)
-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3년미만 → 7년미만 창업자)
- 폐업(위기)여성 소상공인 폐업-재 취·창업 패키지 지원
- 진단-컨설팅-판로개척 등 단계별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제공

### 3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총총하게



#### 경력관리 체계 구축

- 생애·경력주기별(구직 → 결혼·출산 → 경력단절 → 재진입 등) 이력 관리 및 지원
- 구직유형 진단, 경로설계, 경력개발 등 구직 종합서비스 지원

#### 이·전직 설계 지원

- 이·전직 희망 여성 근로자 경력설계·컨설팅·취업연계
- 탄소중립 산업전환 대응 직무훈련 제공
- 플랫폼 일자리 직무 분석 및 직업훈련 패키지 설계·제공
- 플랫폼 분야 자조모임, 멘토링 등 네트워킹 지원

#### 지역 여성 일자리 발굴

- 지역 핵심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개발 운영·확대  
\* (‘25년) 16개 → (‘29년) 전국 새일센터
-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지원 제한기준 폐지
-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및 농업농촌 탐색교육 지원
- 지역 농어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창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 전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영세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 인센티브 제공  
\*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 부담금의 20% 정부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플랫폼 산업 표준계약서(안) 마련 검토

### 5 여성 일자리 기반 탄탄하게



#### 전달체계 구축

-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운영체계 강화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 조회부터 직접 신청까지 정보 연계  
\* e새일시스템-고용24
-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첫 실시

### 4 일·생활 균형 있게



#### 경력단절 예방 강화

-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적 확대  
\* (‘25년) 80개 → (‘29년) 159개 새일센터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 (‘24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년) 공직 유관단체  
→ (‘29년) 민간기업까지 확대 검토  
\* ESG·DEI 관련 기업 HR 담당자 교육(‘25년 400개사)
- 건강상담 등 필요 시 근로자건강센터 신속 연계  
\* 건강관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산업단지 등 설치
- 경력단절 예방주간 첫 운영

#### 육아지원제도 확대

-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및 급여 인상  
\* 월 상한: 15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5월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 3년) 및 연령 상향(초등2, 8세 → 초등6, 12세)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원
- 업무 분담 지원금(최대 월 20만원)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확대 및 상한 인상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 (신규) 육아휴직, 파견사용 지원 / 월 최대 80만원 → 월 최대 120만원(‘25년-)

####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관세조사 유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속 확대  
\*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검토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검토

####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 (‘25년) 200% 이하
-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늘봄학교 확대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 (‘25년) 75개 → (‘27년) 100개
- 돌봄공간 확대를 위한 종교시설 등 활용 절차 간소화  
\* 복수용도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종교시설→노유자시설)

**비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목표**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정책 과제	대과제 (5개)	중과제 (16개)
	1. 청년 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1-1. 사회진출 초기 여성 진로설계 지원 1-2. 청년 여성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1-3. 과학기술첨단 산업 분야 여성 진출 지원
	2.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2-1.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2. 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 2-3. 경력 형성 사각지대 여성 지원 2-4. 단계별 여성 창업인 지원
	3.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3-1.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체계 구축 3-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이·전직 지원 3-3. 지역 중심 여성 일자리 발굴체계 마련 3-4. 여성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4.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4-1.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4-2.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 조성 4-3.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5.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5-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정비 5-2.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붙임 3

## 제3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구분	제3차 기본계획 (2020~2024)		제4차 기본계획 (2025~2029)	
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목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과제 구성	5대 영역	102개 세부과제	5대 영역	121개 세부과제
정 책 과 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활용도 제고</li> <li>조직문화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li> </ul>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진출 초기 여성 진로 설계 지원</li> <li>청년 여성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li> <li>과학기술 첨단 산업 분야 여성 진출 지원</li> </ul>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훈련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확대</li> <li>새일센터의 유형화 및 전문화 추진</li> </ul>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li> <li>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li> <li>경력 형성 시·초대 여성 지원</li> <li>단계별 여성 창업인 지원</li> </ul>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선택제, 유연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 활성화</li> <li>창업 초기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li> <li>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li> </ul>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체계 구축</li> <li>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이·전직 지원</li> <li>지역 중심 여성 일자리 발굴체계 마련</li> <li>여성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li> </ul>
	돌봄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시간 확대 및 질 관리</li> <li>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역량 강화</li> <li>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li> </ul>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li> <li>일·생활 균형적인 근로 환경 조성</li> <li>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li> </ul>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광역 새일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편</li> <li>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강화</li> </ul>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정비</li> <li>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li> </ul>

**붙임 4**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영역 및 지표	성비	2022	2023	22년 vs 23년
<b>국가성평등지수</b>			<b>66.2</b>	<b>65.4</b>	<b>-0.8</b>
동등한 권한	<b>의사결정</b>		<b>30.7</b>	<b>32.5</b>	<b>1.8</b>
	국회의원	F/M	22.3	23.0	0.7
	장관	F/M	20.0	20.0	0.0
	4급이상 공무원	F/M	46.7	50.3	3.6
	관리자	F/M	22.5	25.1	2.6
	법원·검찰·경찰관리자	F/M	41.8	44.0	2.2
자원의 동등한 접근	<b>고용</b>		<b>74.0</b>	<b>74.4</b>	<b>0.4</b>
	고용율(15~64세)	F/M	78.0	79.8	1.8
	정규직 비율	F/M	77.8	77.6	-0.2
	노동시장 직종분리	지수	57.4	57.2	-0.2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82.8	83.0	0.2
	<b>소득</b>		<b>78.3</b>	<b>79.4</b>	<b>1.1</b>
	성별임금격차	F/M	70.0	71.0	1.0
	비빈곤율	F/M	94.9	94.8	-0.1
	국민연금수급률	F/M	70.0	72.4	2.4
	<b>교육</b>		<b>95.4</b>	<b>95.6</b>	<b>0.2</b>
	평균교육년수	F/M	90.9	91.1	0.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F/M	100.0	100.0	0.0
	<b>건강</b>		<b>94.2</b>	<b>94.2</b>	<b>0.0</b>
	주관적 건강상태	F/M	88.3	88.3	0.0
	건강수명(2년 주기)	F/M	100.0	100.0	0.0
	스트레스 비인지율	F/M	94.3	94.3	0.0
평등한 관계	<b>돌봄</b>		<b>33.0</b>	<b>32.9</b>	<b>-0.1</b>
	성별가사노동시간(5년 주기)	M/F	30.7	30.7	0.0
	육아휴직사용률	M/F	37.0	34.7	-2.3
	노인돌봄분담(3년 주기)	M/F	31.4	33.4	2.0
	<b>양성평등의식</b>		<b>80.0</b>	<b>73.2</b>	<b>-6.8</b>
	가족내 성별역할고정관념(3년 주기)	수준	60.1	43.7	-16.4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84.6	81.3	-3.3
	성차별 경험률	F/M	95.4	94.7	-0.7